

2005 만해축전 세계평화시인대회

세계 시인들 詩로 평화의 본질 확인



권영민 세계평화시인대회 준비위원장이 조계종 총무원장 법장 스님에게 <평화, 그것은> 단행본을 헌정하고 있다.

“코라, 플루트, 바이올린의 현, 음비라, 실로폰과 발라폰이 어우러져 내는 하나의 화음, 하나의 목소리에 세상이 깨어나 현자들이 우주의 음악에 모여들면서 정지된 그 순간에 평화의 플라나루 열매는 익어가고 리.” 노벨문학상을 받은 나이지리아 시인 월레 소잉카(72)는 8월 14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폐막된 세계평화

시인대회 평화의 시 낭송회에서 시 ‘평화의 비전’을 읽으면서 남북의 평화, 더 나아가 세계의 평화와 온 우주의 화합을 발원했다.

만해사상실천선양회·강원도·인제군이 공동 주최한 2005 만해축전의 일환으로 8월 11일부터 14일까지 서울 신라호텔, 강원도 백담사, 북한 금강산에서 열린 세계평화시인대회에는 만해대상 수상자인 월레 소잉카, 미국의 계관시인 로버트 핀스키 등 해외 유명 시인 28명이 참가했고, 40여 명이 평화를 주

소잉카·핀스키·고은 등 국내외 시인들 금강산서 평화의 시 낭송 시뮬어 단행본 출간, 친필 원고는 만해마을 시벽에 영구 전시

제로 한 시를 보내왔다. 국내에서는 고은 대회장을 비롯해 오세영 유안진 신달자 김종길 등 50여명이 동참했다. 이들이 이번 행사를 위해 평화를 주제로 노래한 시들은 <평화, 그것은>이란 제목의 단행본으로 묶여 출간됐다. 또한 시인들의 친필 원고들은 역



8월 12일 북한 금강산 호텔에서 열린 세계평화시인대회에서 ‘평화의 시’ 낭송을 듣고 있는 로버트 핀스키, 윌레소잉카, 로버트 하스(왼쪽부터).

자에 담겨 백담사 만해 마을 야외 전시장에 설치된 평화의 시벽(詩壁)에 영구 전시된다. 14일 폐막식에 앞서 ‘시의 평화’를 주제로 열린 시포지엄에서 미국의 계관 시인 로버트 핀스키는 기초

연설을 통해 “미국 시인이라면 불교 사상과 실천에 깊은 영향을 미쳤던 승려 만해가 독립선언서의 공저자라는 것과 현대시의 선구자 한용운이었다는 것을 읽으면서 놀라게 된다”며 만해의 업적을 높이 평가했다. 월레 소잉카는 ‘창의성과 평화’를 주제로 한 기초

연설을 통해 “평화는 포기를 요구한다. 여기서 말하는 포기는 권력을 향한 욕심의 포기이며 그것은 억압이 아닌 자유의 끝없는 가능성의 의식을 채워넣는 작업과 연결된다”며 “이런 휴머니티의 지평을 확장하는 인간의 노력에 필요한 것이 바로 시적 감수성”이라고 말했다.

한편 8월 12일~13일 북한 금강산 호텔에서 ‘세계평화의 시 낭송’ 대회가 열렸다. 이날 행사에서 고은 대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이 곳은 얼마전 남북 작가들이 분단 60년만에 만나서 문학축전을 개최한 바 있는 역사적인 곳”이라며 “세계 각국 대표들이 모여 평화의 본질이 곧 시의 본질임을 확인하는 것이 바로 이번 행사의 개최 목적”이라고 밝혔다.

12일 저녁 6시부터 금강산 호텔에서 만찬 형식으로 진행된 이날 행사에서는 이근태 김학렬 신경림

권기호 등 한국측 시인 20여명과 나오바랏 풍파이분(태국) 로버트 하스(미국) 헤티아라치(스리랑카) 인도자인(인도) 우틴묘(미얀마) 등 세계 각국 시인 20명 등 총 40명이 평화를 주제로 한 자작시를 낭송했다. 총 3부로 나눠 진행된 이번 행사에서는 각 부가 끝날 때마다 판소리공연과 가요공연으로 흥을 돋우기도 했다.

다음날인 13일 참가단 일행은 구룡연과 현재 복원 중인 신계사를 방문했다. 신계사 복원현장에서 미국의 시인 로버트 하스 버클리대 교수는 “북한 금강산의 대다수 사찰은 한국전쟁중 미군에 의해 파괴된 걸로 알고 있다”며 “불자는 아니지만 미국 사람으로서 꼭 이 곳에 와서 미안함을 부처님께 전하고 싶었다”고 감회를 털어놓았다.

글·사진=김주필 기자 jkim@buddhapia.com

동남아불교국 시인4인에게 듣는 시세계

■ 이쿠라 고헤이(65·일본)



‘내면을 향한 긴긴 여로에서 사라 꽃 피는 무인의 달을 지나갔다. ...스스르 스스르 꽃잎은 우주의 어둠속을 미끄러져 갔다’ <시집 ‘지구의 물가’-사라의 끝부분중에서>

최근 시작(詩作)에 대한 관심의 증점을 ‘사라 제함’에 두고 있습니다. 이것은 평화에 대한 회고와도 상관되는 것이지요. 새로 사라를 테마로 최근에 몇 작품 만들었을 때 출간한 옛 직장 동료가 ‘사라’에 관한 내용을 사전에서 복사해 보내줬습니다. 산스크리트어로 쓰여진 ‘사라’에는 식물 이름이외에도 ‘들러람’이나 ‘집안에 있다’라는 명사나 형용사적인 의미가 있다는 것을 처음 알았습니다. 인간은 사라라고 불리는 누군가를 찾아 헤매는 영원한 나그네입니다. 그것은 인류의 비장한 소원인 평화를 기원하는 이미지이기도 겹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얀 꽃, 시의 어휘만큼, 시어에 의한 이미지의 힘만큼 우리의 생명과 깊게 이어진 것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사라’에 대한 시작을 몇편 더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라 꽃’ 통해 인류의 소원 평화 기원

■ 시리세나 반다 헤티아라치(66·스리랑카)



‘친구들이여, 우리 이제 평화를 위해 시를 씁시다. ... 종교가, 우리의 기도가 이 땅의 평화를 위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면, 그 어디에 우리 믿는 자들이 설 수 있겠나이까.’ <이제 한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소서 중에서>

나는 주로 스리랑카의 자연환경과 스리랑카 민족의 서정을 노래해 왔습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불교문화에 흡수된 싱할라 민족의 문화와 생활을 서정적으로 그리는 작품이 많았지요.

물론 나는 서구에서 공부해 비교적 서구화된 세계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 작품은 중앙적 세계관인 석가 세존과 불교의 원형을 현실 속에서 구현하려는 이미지를 시풍으로 표현하려고 애씁니다. 그래서 지금도 새벽 4시엔 일어나 명상과 경전 독송을 합니다. 부처님 말씀을 가슴에 새기며 그것들과 내 마음이 일치했을 때 법열을 느끼며 시로 표현합니다.

이번이 12번째 한국방문인데 요즘에는 부산 동국전법대학과 범어사 승가대 강의 때문에 한국에 자주 오는 편입니다.

부처님 말씀 내 마음 일치할때 시로 표현

■ 나오바랏 풍파이분(65·태국)



‘인간은 평화를 원한다. 평화는 도처에 퍼져 나가 행복을 느끼게 한다. 인간은 현실과 반대인 아름다운 세상을 얻고자 한다.’ <평화 중에서>

28살 때 10개월동안 승려 생활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때 경전 강독과 행선(行禪)을 많이 한 것이 시를 쓰는 데 큰 디딤돌이 됐습니다. 내 시세계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뉩니다.

첫째는 내면의 평화입니다. 불교의 교리들을 바탕으로 하여 독자들에게 마음의 평화와 안식을 느낄 수 있는 작품들을 많이 썼습니다.

둘째는 인본주의입니다. 가깝게는 내 가족을 비롯해 내 이웃, 내 동료 등 인간을 사랑하게 하는 것이 내 시의 목표중 하나입니다. 셋째는 낭만주의입니다. 나는 시인일뿐만 아니라 플루트 연주자이기도 합니다. ‘낭만’이라는 것은 인생을 풍요롭게 하고 서로를 화합하게 하는 좋은 시의 재료이지요. 그래서 시낭송을 할때 플루트 연주도 함께 합니다.

‘낭만’은 서로 화합하게 하는 좋은 소재

■ 우틴묘(62·미얀마)



‘고타마 붓다께서 중앙의 인도에서 시작하여 설하고 훈계하신 세상의 평화를 위한 인간계에서의 사십오년, 전력을 다해 법을 보이신 뒤 삼장(三藏)의 고귀하신 법 남기셨다.’ <평화에 대한 회담중에서>

내 시에는 불교적 소재와 자연의 아름다움, 소박한 미얀마 사람들의 일상이 자주 소개됩니다. 불자로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시로 옮기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요. 미얀마 사람들의 불심은 상당히 둔독합니다. 나도 아침마다 매일 40분씩 부처님을 향해 기도를 올리지요. 그런데 매일 부처님을 향한 내 마음이 다릅니다. 이런 마음의 변화들을 주로 시로 옮기지요.

미얀마의 자연은 아름답고 소박합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도 순수하고 소박하지요. 이들의 삶과 미얀마의 자연을 시로 옮길 때 가장 큰 행복을 느낍니다. 이것이 시인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시를 쓰지는 않지만 사람들에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좋은 시로 옮기기 위해 불교 공부와 위빠사나 명상을 매일 합니다.

불교 자연 순박한 삶의 표현은 나의 의무

梵魚寺 간화선 대중화를 위한 10대 선사 초청

범어사 설선대법회 법문세트

문 없는 문을 열다

한국불교를 대표하는 10대 선사의 간화선 수행에 대한 상세한 법문을 만나보세요.

범어사와 현대불교신문사가 공동주최한 ‘범어사 설선대법회’의 열분의 범주스님들의 법문 카세트테이프 10개 1세트

판매처: 마하몰 www.mahamall.co.kr 02)732-1520 / 02)2004-8218~9

입금계좌: 국민은행 006-01-0785-361 현대불교신문사 우체국 010041-01-012219 현대불교신문사 농협 053-12-113210 하동규

30,000원 (무료배송)

500세트 한정판매

※ 설선대법회 CD, Video도 있습니다. (각10,000원)

현대불교신문사

보살님! 올 백중재에는 ‘염불환향곡’이 인기입니다!

어디 염불만한 기도와 수행이 있겠습니까?

울 봄, 현대불교신문사에서 『염불환향곡(念佛還鄉曲)』을 출간하였습니다. 『염불환향곡』은 뛰어난 운율의 미와 탄탄한 구성 그리고 국내 최초의 가요체 염불곡으로서 연세가 많으신 분도 외우거나 따라 읽기 쉽게 리듬이 스며있는 현대인의 불교 수행 지침서입니다. 이제 염불로서 각 가정에 부처님 말씀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염불환향곡(念佛還鄉曲)

기성 쾌선 지음, 현대불교신문사 엮음

해설집: 신국판/200쪽/가격 7,000원
독송집: 국배판/ 92쪽/가격 5,000원

구입은 인터넷·통신판매 여시아문(www.yosiamun.com)에서 즉시 전화·인터넷 주문배달되며, 대형 서점 및 불교출판서점에서도 구입이 가능합니다

서울시 중구 청운동 54번지 현대불교신문사(연수원) Tel:02)2004-8200(대), 02)2004-8220(여시아문), 02)2004-8225(출판부) Fax:02)737-0696